

1124(목) 고린도후서 1-5장 위로의 하나님

사도 바울에게는 늘 고난이 많았습니다.
주 뜻대로 행한 일인데 성도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고
사도직을 의심받거나 비교,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.
심각한 육체적, 심리적 고난과 중압감으로 인하여*
사형선고를 받은듯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(1:8-9).

*kath̄ hyoerbolēn, 배가 짐무게에 못 이겨 가라앉음

바울은 사도이기에 앞서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.
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복음을 누리는 수혜자였습니다.
그는 깊은 슬픔과 고통, 처참한 상황, 절망 가운데서
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.
영적 재무장을 통해 다시금 사역을 이어갔습니다.
(2:10-11,14, 3:5-6, 4장, 5:17-21)

<위로(헬. 파라클레시스)>에는 깊은 의미가 담겼습니다.
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함께하면서
그의 감정, 상황, 형편을 살피며 때에 맞는 말로써
다음 단계와 수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,
새로운 희망/안목/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. 톰 라이트

하나님은 우리의 <위로자>가 되십니다(1:3).
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모든 고통을 겪으셨고,
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.
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
위로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회복됩니다.
(1:4-7, 4:10-18, 5장)

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.
모든 일을 아시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.
우리를 건지셨던 주님은 또 건지실 것이며(1:10)
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(1:3).

나는 고난의 상황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합니까?
① 내주하신 성령으로부터 참 <위로>를 받고 있습니까?
② 십자가, 부활을 묵상하며 회복과 사명으로 나아갑니까?